

# 차세대중형위성 주 활용기관 '맞손'

### 농진청, 우주 시대 대비 '위성 공동 활용'... 농업·산림·국토·수자원 협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차세대중형위성 영상 정보 공유, 품질향상 및 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차세대중형위성 영상 정보 공유, 품질향상 및 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위성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농업·산림·국토·수자원 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기관별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 수자원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차

세대중형위성 영상 상호 공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위성정보 공동 분석 및 실용화 기술개발 △차세대중형위성 운영·활용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기관 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행사 개최 및 인적 교류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각 기관 소속 위성센터는 위성 관측 자료 공유, 산출물 검증·보정 알고리즘 개발, 공동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위성 산출물 활용 촉진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운영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호기(국토위성) 영상 정보를 활용해 국토이용 정보 수집(모니터링), 국토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분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25년 발사 예정인 4호기(농림위성)를 주로 활용해 국내 농업생산 환경 및 농작물 재배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은 5호기(수자원위성) 영상데이터 자료를 한

반도 수자원·수해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4개 기관의 정보 융합은 농업 분야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는 동시에 농산물 안정생산과 수급 조절 등 정책 농업·산림·국토·영농 의사결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분야의 협업 특히 위성 공동 활용의 시너지는 분야별 고유 업무의 고도화는 물론 위성영상 활용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내 위성 개발 수요의 제공과 우주 산업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지상에서 우주까지 분야별 현장 관측자료와 위성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게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익산군산축협 이종철 차장이 새로운 농협인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 농업인 소득증진·권익보호 앞장

### '새로운 농협인상', 익산군산축협 이종철 차장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익산군산축협 이종철 차장이 새로운 농협인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새로운 농협인상은 변화와 혁신의 정신으로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수 농축협 직원을 전국적으로 매월 10여명 선발해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인 이종철 차장은 1988년에 입사하여 지도 경제사업 업무를 담당 하면서 투철한 봉사정신

으로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23년 소 럽피스킨병(ISD), A발생 등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선제·적극적인 대응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에 앞장섰으며, 축사 CCTV 설치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이종철 차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하림, 혈액 수급난 해소

#### '사랑의 헌혈' 생명나눔 실천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은 최근 익산 본사에서 지속되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인구 감소와 증증 수혈환자 증가 등에 따라 혈액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림은 혈액 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상호협약을 맺고 분기마다 1회씩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며 혈액 부족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매 분기마다 60~70여 명의 임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고, 기부된 헌혈증서는 분기별로 긴급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 아동 등 위급한 환자들에게 기증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사회적기업육성지원 후속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 전북 경진원, 사회적기업의 인·지정 진입 촉진·컨설팅·멘토링·사업화 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사업지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지원 후속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 후속지원사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강원), 서남권(충청, 대전, 세종, 전라, 광주광역시, 제주), 동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경북) 3개

권역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50개 지정과 사회적기업 인증 100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후속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지정 진입 촉진과 기업별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 사업화, 고도화 지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진원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진원은 "사회적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인자율배수장 가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 농어촌공 전북, 무인자율배수장 가동 점검... 재해 대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 4일 전북지역본부 및 10개 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인자율배수장 가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무인자율배수장 점검은 태풍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상황발생 시 침수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수장의 무인자율 제어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재해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무인자율배수장 가동점검은 농업용

수관리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도내 71개소 무인자율배수장을 대상으로 합동 실시하였으며,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 수위에 따른 경보 메시지 발신 및 펌프 자동운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은 "무인자율배수장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이상 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농경지 등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새만금개발청, 전 직원 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최근 10.2조원 투자유치 성과 등 새만금의 괄목상대할 성과에 대해 직원들을 축하하고,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일 윤순희 차장을 비롯해 170여명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진행되었으며, 격무 근무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0.2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동서·남북도로 완전개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은 기

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이자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을 핵심키워드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최우선으로 새만금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면서 "올해에도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기온 및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 근로자와 현장 및 입주 기업이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